

01 교회소식

축복의 헌신예배

'2016 주의 종·직원 헌신예배'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드려져 헌신자들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을 더해 주었다.

02 생명의 말씀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

성경을 이루며 연단을 잘 받아 영적인 빛을 내는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

03 기획특집

'변개하지 않는 마음'의 가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선의 행함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한다.

04 간증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어요!"

가족이 질병을 치료받고 주님을 영접해 기쁘다는 대만 짜우만즈 성도와 교회에 나와 모든 것이 새로워진 정태성 권할 간증.

만민뉴스

제725호 2016년 2월 1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참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2016 주의 종·직원 헌신예배, 주제는 '믿음'



당회장 이재록 목사(왼쪽 위)의 설교를 통해 헌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단에서 전폭적인 신뢰와 온전한 순종, 마음 다한 충성으로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마지막 때의 사역을 더욱 힘차게 이룰 것을 다짐했다(큰 사진은 특송).

만민의 본격적인 제3도약기를 맞은 2016년, 하나님께서 첫 헌신예배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믿음'이었다. 지난 2월 7일 주일 저녁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2016 주의 종·직원 헌신예배'를 드렸다.

이날 헌신자는 주의 종, 레위(교회 직원),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에스더회(주의 종 사모들 기관), 기도제물연합회(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기관) 등으로 마산, 춘천, 광주, 여수, 익산, 대전, 무안, 구미, 대구 등 지교회에서도 은혜를 사모하여 참석하였다. GCN 방송과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생방송 되는 가운데 이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믿음'(빌 4: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이 목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라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믿음만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다고 화두를 연 뒤, 참믿음의 증거로 전폭적인 신뢰와 온전한 순종, 그리고 마음 다한 충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끝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을 당부하였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헌신자들은 예배를 통해 성령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계를 이룰 가슴 벅찬 비전을 품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귀한 제단의 일꾼으로서 큰 영광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1982년 7월 25일 개척예배 시 '보배 중의 보배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13명의 성도로 시작한 우리 교회는 지난 33년간 오직 믿음으로 행군하여 1만여 자·협력교회를 이뤘고, 34년이 되는 올해 본격적인 제3도약기를 맞아 또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빛 가운데 행하는 만민의 성도들은 질병과 재앙 걱정 없이 가정·일터·사업터에 축복받으며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한해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만민의 사역은 복합적인 축복과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통해 더욱 창대히 이뤄질 것이다.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권능의 손수건 집회

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교회 선교사들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온갖 질병과 연약함 등이 치료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54개국 아프리카 선교의 중심지인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에서도 매달 '권능의 손수건 집회'가 개최되고 있다. 지난 1월 24일에 열린 집회에서 정명호 담임목사(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경회 총회장)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환자로 접수한 180여 명 대부분이 치료받아 간증하였다.

그 가운데 집회 전 전도받아 참석한 차로 성도(65)는 2년 전 전립선암 수술 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장실을 가

야 했지만 기도받은 후 그 증세가 사라졌고, 그의 아내 메리 성도(62)도 잘 움직일 수 없던 오른쪽 다리를 치료받았다. 또 수잔 성도(35)는 여섯 살 때부터 악몽에 시달려 왔으나 기도받은 후 악한 영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등 희한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라"(요 4:48)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손수건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케 함으로 국내는 물론,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전 세계 1만여 자·협력교회의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 정명호 목사(사진 위 오른쪽)의 손수건 기도로 치료받은 차로, 메리 성도 부부(사진 위 중앙)와 악한 영에서 놓임받아 간증하는 수잔 성도(사진 아래).



당회장 이재록 목사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21)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

릇은 큰 사명을 맡았으되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가령,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와 같은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그릇은 보통 사람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신 곧 정직, 진실, 정한 마음, 곧은 절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품격과 품위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강대국의 총리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요셉과 다니엘 같은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릇은 마음이 선하여 다투거나 들레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을 구한 에스더나 하나님의 벗이라 불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분들이지요.

거룩해지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 하며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하는 일은 마냥 즐겁고 행복합니다. 힘들거나 어렵고 짜증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위배하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2) 연단을 잘 받아 영적인 빛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원석에는 불순물들이 섞여 있지만 전문가의 손에 연마되면 아름답고 찬란한 보석으로 탄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에게 영육 간에 축복을 주시고자 연단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고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벧전 2:19-20).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 시험 환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축복을 위한 연단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신속히 회개해야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미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좇아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흠도 티도 없으신 거룩한 빛 자체이시니 사랑하는 자녀들도 보석보다 아름다운 빛의 차원에 이를 수 있도록 단련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의 연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선과 사랑으로 채우면 더욱 빛나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지요. 또한 영적인 빛의 강도가 커짐에 따라 그 권세와 능력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3.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될 때 임하는 축복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내쫓지 못한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며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보내시니 아이가 온전케 되었지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은 그들과 예수님의 영적인 빛의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밝은 영적인 빛의 차원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시련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단 가운데서도 믿음과 선, 사랑과 의가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귀신을 제어할 수 있고 어떠한 질병이나 연약함도 고칠 수 있습니다.

저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 아무 잘못 없이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랑으로 간구하였습니다.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이 시험을 통해 비로소 실력을 인정받듯이 연단을 통해 믿음과 사랑이 확증되자 하나님께서는 예전보다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연단이 끝난 후에는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수만, 수십만 혹은 수백만이 넘는 인파가 모인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려 주시는 영적인 빛은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빛으로 돌려받은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라 인정하십니다.

신속히 주님의 마음을 닦아 성결을 이루며 영적인 빛을 발하는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 무엇이든지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되려면

1) 마음을 깨끗게 하여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각양은사,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고, 마태복음 15장 18-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데 이는 영적인 물 곧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했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마음을 깨끗이 씻는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하지 말라”, “버리라” 한 대로 행하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성들과 악성들이 버려지니 자연히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이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몸의 행실도

많은 돌무더기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있다면 금방 눈에 띄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보석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넘치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1.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란?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은 물론, 나무와 짚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그릇의 용도는 무언가를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그릇에 비유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담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권능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 곧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귀히 여기시며 아름답다고 인정하시는 그릇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축복의 지름길, ‘변개하지 않는 마음’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결같다’ 혹은 ‘꾸준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과 선의 행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처럼 변개하지 않는 참마음을 이루어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받으며 축복된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도리를 다하는 차원을 넘어 사랑과 정성을 다한

◆ 룻

1

룻기를 보면 이방여인 룻이 재앙을 만나 남편이 죽고 자녀가 없는데도 한번 섬긴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된 여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룻은 단순히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는 차원을 넘어 사랑과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 장차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오르는 축복을 받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게 좋을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내게 유익이 될 때는 상대와 함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멀리하고 등 돌리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봄으로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이다.

자기를 죽이려 해도 변함없이 선과 사랑으로 대한

◆ 다윗

2

사울 왕은 백성의 사랑을 받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그를 죽이려 했다. 도피생활을 하는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삼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니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다윗은 변함없이 사울을 왕으로 섬겼으며 오히려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선으로 감동시킨다(삼상 24장).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다윗을 기뻐하시며 왕으로 세우시고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만일 누군가 내게 해를 입히거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면 다윗처럼 선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자. 하물며 윗사람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감정이 상하거나 섬기던 마음이 변하고 열심 내던 마음이 식어졌다면 불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 다니엘과 세 친구

3

다니엘은 악한 무리의 계략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결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도,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중히 여김으로 사자의 위협에서 보호받은 것은 물론 더욱 왕의 총애를 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단 6장).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지는 시험을 만나지만 끝까지 변개하지 않는 참마음을 나타내 보임으로 전혀 불에 타거나 상하지 않았고, 더욱 높임을 받았다(단 3장).

우리가 변개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실망하고 의심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은혜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변함없이 지켜 행한

◆ 입다와 한나

4

변개하지 않는 마음을 이루려면 한번 입술로 낸 말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약 3:2).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은 신중해야 하며 일단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서원을 이행했다(삿 11장). 그러기 위해서는 외동딸을 희생시켜야 하는 아픔이 따랐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낸 바를 끝까지 지켰던 것이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려(삼상 1:11) 잉태의 축복을 받고 아들 사무엘을 얻은 뒤 서원한 대로 행한 것을 볼 수 있다. 조금도 망설이거나 슬퍼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의 기도를 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니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후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심으로 축복해 주셨다.

순교하기까지 주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었던

◆ 사도 바울

5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다녔다. 하지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주님을 만난 체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은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 시험이나 위협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는 믿음이 되었다(고후 11:23~27). 순교하기까지 이방인 선교에 힘쓰며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천국의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처럼 영적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도 많은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사명을 구태의연하게 감당하고,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참마음을 이룬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져 사도 바울처럼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함에 변함없었던

◆ 막달라 마리아

6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예수님을 섬겼고, 설령 예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다 해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였다. 이처럼 지극히 선한 향을 내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기는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에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큰 감동을 입으셨다.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도 변함없이 붙좃았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는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시는 마지막 때에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성도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사랑보다 결코 적게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속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p>FEBRUARY</p> <p>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2.14~2.20</p>	<p>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사랑장 12-16 우리의 열심은 일곱교회 1-4 천국 16-20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4 믿음의 분량 14-18 위로부터 난 지혜 1-7 요한계시록 강해 20-25 	<p>GCN TV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과 영 1-5 [이수진 목사] 지혜 4 [이미영 목사] 말속에 마음 [이미경 목사] 은혜 [이희선 목사] 옴기 강해 14 [신동초 목사] 탕자의 비유 1 [정구영 목사] 양선 [김수정 목사]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9 알콩달콩 여여쁜 율동 45 내 마음의 찬양 17 창조와 과학 22 English 1 모두 드려요 37 뷰티풀 라이프 1 즐거운 요리 15 흥겨운 소리 3 옛날 옛적에 9 플로리스트 2 	<p>해외성회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 연합대성회 3 믿음으로 걸은 길 29 회상 [시즌2] 10 <p>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p>
--	--	---	--	---



아, 나에게도 이런 행복이 오다니!

“남편의 중풍, 딸의 우울증이 치료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어요”



건강해진 남편과 함께
짜우만즈 성도 (62세, 대만만민교회)

저희 가정은 깨진 거울과 같았습니다. 제 남편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쓰는 것이 더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았고, 결국 저는 남편과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둘째 딸은 우울증에 걸려 낮에는 잠만 자고 밤에는 컴퓨터 게임만 하였지요.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나날을 보내던 중, 한 자매님이 대만만민교회에 가자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만민교회에 한 번 가면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을 텐데요.”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겨 가보았지요.

2009년 11월, 대만만민교회의 첫 느낌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김경희 담임목사님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영혼육’, ‘천국’ 등의 설교 말씀으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신앙생활의 맛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1년 4월, 따로 살던 남편이 중풍에 걸려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저는 남편 병간호에다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느라 심신이 날로 지쳐 갔지요. 그 와중에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보내준 관심과 사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곳까지 심방을 와 주셨고, 남 성도님들은 남편과 함께 장기도 두시며 따뜻하게 대해 주셨지요. 때때로 제가 힘들어서 많은 눈물을 흘릴 때면 담임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상하게 상담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GCN 생방송(www.gcnetv.org)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을 미워했던 감정을 회개하며 남편을 중심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하였지요. 밤낮으로 교회에 가서 남편과 딸을 위해 사랑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2012년 3월, 제 모든 행함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딸이 전도되더니 두 달 뒤에는 남편이 퇴원과 동시에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통해 놀랍게 치료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고 말도 정상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딸도 우울증을 깨끗이 치료받아 직장 생활을 아주 잘하고, 기도도 하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지요. 이제는 제 가족으로 인해 염려,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아, 나에게도 이런 행복이 오다니!’ 믿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저희 가족을 이처럼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케 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교회 나올 걸 그랬습니다”

정태성 권찰 (72세, 춘천만민교회)



아들을 먼저 여인 슬픔에 인생의 낙을 모르고 살던 저는 2015년 3월, 고향 친구의 아내 김명순 집사님의 끊임없는 전도로 춘천만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화상예배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선한 가르침과 성도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느끼며 감동이 되었지요. 당회장님께서 항상 제 곁에 계셔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자 칠십 평생 느끼지 못한 위로와 행복을 얻었습니다.

작년 8월에는 ‘2015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여 첫날 당회장의 환자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간증하는 권능의 역사와 전국적인 폭염에도 수련회 장소는 시원하고 쾌적했던 기사(奇事)를 체험하며 제 마음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9월 20일, 유리컵을 들고 걸어가다가 넘어져 왼손 손가락의 신경과 인대가 손상되었습니다. 서울중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는 100%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손에 아무 감각이 없고 손

가락을 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4일, 상경하여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뒤에는 통증이 사라졌고, 당회장님께서 제가 농사로 인해 온전히 주일성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권면해 주셨지요. 그때부터 저녁예배까지 온전히 드리며 기도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달 27일에는 강릉만민교회 창립 12주년 기념예배 시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은 뒤 통증이 사라지고 손가락이 펴지기 시작하였지요. 이후 인대와 신경이 신속히 회복되었습니다.



11월경에는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무안단물(출 15:25)을 뿌렸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나면서 까맣게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젊음을 되찾은 기분이었고 지금은 더 많이 까맣졌지요. 5년 전, 위 절제 수술을 받아 늘 소화가 안 되었는데 무안

단물을 마신 뒤 치료받았지요. 더욱이 병관길에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로는 냄새를 맡지 못했는데 올해 1월 16일, 집에서 청국장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서 부엌에 들어가 갓 짜온 참기름을 가져다가 냄새를 맡아보았더니 고소한 냄새가 물씬 풍겼지요. 26년 동안 잃었던 후각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작 교회 나올 걸,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하고 후회가 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좋은 교회를 만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와 새벽예배에 참석하여 칠십 평생 지난날 과오를 주님께 회개하니 마음이 새털처럼 가볍습니다. 제가 달라지니까 자녀들도 무척 좋아합니다. 많은 축복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책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명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들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톨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7195-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2층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충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성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552-7397, 010-8163-1537
- 구리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